

## 고문헌을 통해 본 방충향

이 경 회<sup>1</sup> · 권 영 숙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 A Review on Ancient Literatures of Anti-insect Incense

Kyung-Hee Lee<sup>1</sup> and Young-Suk Kwon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6. 7. 1. 접수; 2006. 9. 2. 채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ffects of natural incense on the preservation of paper- and textile-based remains and the kinds and applications of natural anti-insect incense by reviewing relevant literatures of the ancient times. There are few ancient literatures of incense published in Korea. The researcher deducted how incense was used in this nation through reviewing verses contained in ancient literatures and medical books. In contrast, the kinds and applications of anti-insect incense used in China, where incense culture prospered, were investigated here through reviewing technical books about incense published during the Song(宋) and Ming(明) periods, 《Incense record(香譜)》, 《Chen's Incense record(陳氏香譜)》 and 《Incense record(香乘)》.

There were several methods of keeping clothes better from insects. In relation, how to use anti-insect incense varied in accordance with main materials of clothes, paper, textile, leather and others. *Cymbopogon distans*(芸香), *Brassica rapa var*(蕓薹) and *Incarvillea sinensis*(角蒿) are anti-insect incense which were used for paper. Anti-insect incense for textiles is classified into single and mixed incenses depending on whether only one kind of incense was used or more than seven kinds of the substance. *Acori rhizoma*(苜蓿), *Capsella bursa-pastoris*(薺菜化), *Lactuca sativa* L. (高苜蓿), *Erigeron canadensis*(莽草), *Stemona japonica*(百部) and *Moschus sifanicus*(麝香) are single anti-insect incense which were used for textile. While, the latter was called. 'Yi Xiang(衣香)' is mixed anti-insect incense which was used for textile. *Artemisia asiatica*(艾葉) and *Zanthoxylum schinifolium*(花椒) are anti-insect incense which were used for leather. *Angelica dahurica*(芳香) and Bamboo are anti-insect incense which were used for others.

There were three main methods of using incense to prevent insects, that is, diffusing incense's strong scent and ingredients, exposing to smokes from burnt incense and washing with incense-boiled water. Diffusing incenses had a strong scent and antibiotic ingredients, which were put between books or clothes or into a storage box without being processed. If necessary, however, they were processed into rough powders that were in turn used singly, or otherwise mixed for a stronger scent and better insect elimination. Exposing to smokes from burnt incense was done as follows. A clothes was put on 'Long(籠)' underneath which there was a boiling water. The clothes was humidified by the water and then exposed to smokes from burnt incense. 'Long(籠)' had been long used since it was manufactured in the QinHan(秦漢) period for the first time. A local literature, 《Koryo TuGing(高麗圖經)》 shows that in the Koryo(高麗)

이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R01-2003-000-10276-0)의 지원을 받았음.

<sup>1</sup> 교신저자 E-mail : dahyang-lkh@hanmail.net

period, BoShal.u(博山爐) were used as a means of exposing clothes to smokes to prevent moths, similarly to China. Washing clothes with incense-boiled water was more effective in removing lots of worms and germs from clothes, but leaving the scent and ingredients of the used incense and maintaining the effect of anti-insect.

*Key words:* anti-insect incense(방충향), paper(지류), textile(섬유류), leather(피혁류), main methods of using incense(방충법).

## I. 서 론

예로부터 향료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통향의 용도는 공양, 방향, 정화, 방충, 치료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sup>1)</sup>. 그 중에서 복식과 관련한 향의 용도는 방향과 방충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대부분이다. 몸과 의복에서 좋은 향기를 발산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는 향료를 바르거나 목욕하였고 간접적으로는 향료를 향낭 속에 담아 패용하거나 향료를 태운 연기를 쏘임으로써 향이 스며들게 하였다<sup>2)</sup>. 또한 의복을 충해없이 잘 보관하기 위해서도 향을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천연 향이 지류 및 섬유류 유물의 보존에 효과적이라는 점과, 섬유류 유물의 친환경적인 보존의 측면에서 고문헌 고찰을 통해 예로부터 사용된 천연 방충향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고찰에 이용된 고문헌은 향에 관한 전문서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古典國譯叢書에 나타난 여러 기록과 醫書를 통해 향의 사용법을 살펴보았으며, 향 문화가 비교적 많이 발달하였던 중국의 경우는 송, 명대 향 전문서인 《香譜》, 《陳氏香譜》, 《香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II. 용도별 방충향

예로부터 의복은 견, 면, 마, 가죽, 종이와 같은 다

양한 재료로 제작되어 왔으며 종이는 의복의 형태 유지를 위한 보조재로 주로 사용되었다. 이들은 모두 유기물질로 환경과 곤충의 의해 손상되기 쉬운 결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복을 충해없이 잘 유지·관리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시도되었다. 경험과 기록에 의해 전해진 방충향은 그 용도별로 살펴보면 크게 紙類, 纖維類, 皮革類, 기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지 류

지류 문화재를 손상시키는 주요 가해 곤충은 딱정벌레목(Coleoptera, Linné), 좀목(Zygentoma, Börner), 나비목(Lepidoptera, Linné), 귀뚜라미목(Grylloblattodea, Brues et Melander), 다듬이벌레목(Pso-coptera, Shipley), 벌목(Hymenoptera, Linné), 흰개미목(Embioptra, Shipley), 파리목(Diptera, Linné)의 8가지이다<sup>3)</sup>. 과거에는 어떤 곤충이 지류를 손상시키는 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서적을 잘 보관하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芸 香

운향은 서적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어 《향보》 《진씨향보》에 ‘芸香辟紙魚蠹故藏書臺稱芸臺<sup>4)</sup>’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송대에 이미 운향이 서적의 쉼을 쫓는 방충용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향승》에 ‘生採之著於衣書可辟蠹’ ‘採芸香集置席下能去蚤蝨子<sup>5)</sup>’라 하여 의복과 생활 공간에 서식하는 벼룩과 이

1) 이경희, 이주영, 권영숙, “우리나라 전통 향의 용도와 성격적 특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권 4호 (2005), pp. 396-398.

2) 이주영, 이경희, 권영숙, “중국 향료의 유형과 특성,” *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 제3회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집* (2005), p. 39.

3)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자료*,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pp. 40-42. 杉山眞紀子, 佐藤仁彦 共譯, “博物館の防虫対策手引き,” (淡交社, 1991) pp. 13-39.

4) 香譜 卷上 香之品 芸香 / 陳氏香譜 卷一 香品 芸香.

5) 香乘 卷四 香品 芸香, 芸香去蝨.

〈표 1〉 운향의 용도가 나타난 시문학

시대	작가	간행	내용	원전
조선	李穆 (1471~1498)	1518	…운초의 향기는 즙을 물리치고… (芸香辟穢)	續東文選 券二 賦 弘文館賦
	金剛 (1466~1509)	1518	…운초의 향기는 즙을 물리치면서 앞 섬돌에 오고… (芸香辟穢來前砌)	續東文選 券八 貫虹樓
	申欽 (1566~1628)	1630	…운향 냄새 오랫동안 장서각에서 맡았네… (芸香長向閣中看)	象村先生集 十三 上琴承制
	金宗直 (1431~1491)	1640	…운향초소리 시끄럽게 버석거리니 좀벌레들이 견뎌내질 못하여… (芸香紛絳奈 / 蟬蠶不能欺)	佔畢齋集 六 文武樓觀書籍
	李德懋 (1741~1793)	정조대	…운향에서 임금의 은덕 입었고… (芸香猶宿紫薇陰) …은혜입어 운향각 출입하니… (承恩出入芸香閣)	靑莊館全書 六十九 寒竹堂涉筆下 達句長韻

를 제거하는 데도 운향이 효과적임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문학에 나타난 운향의 용도를 찾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 운향은 ‘芸香辟穢’ ‘芸香紛絳奈 蟬蠶不能欺’<sup>6)</sup> ‘承恩出入芸香閣’<sup>7)</sup>으로 기록되어 있어 우리나라 또한 조선시대에 운향이 좀벌레로부터 서적을 보호하기 위한 방충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운향을 서적과 관련하여 校書館을 ‘운향각’이라 표현하고 있어 서적 보관과 운향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였음을 보여준다.

의서인 《濟衆新編》 5권 雜方에도 ‘芸蠶辟蠹置書中無蠹患’<sup>8)</sup>이라 되어 있으며, 《山林經濟》 4권 잡방에는 書齋 보존은 물론 서화 배접에도 운향을 사용하고 있어<sup>9)</sup> 운향은 옛사람들이 지류를 충해없이 보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사용에 있어 배접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가공없이 자연 상태 그대로 이용하였다.

## 2) 평지(芸蠶)

6) 佔畢齋集 券六 文武樓觀書籍.

7) 靑莊館全書 券六十九 寒竹堂涉筆下 達句長韻.

8) 濟衆新編 券五 雜方.

9) 山林經濟 券四 雜方 書齋.

10) 閨閣叢書.

11) 保健新聞社(1998) 中藥本草學, pp. 516-517.

12) 김진일,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곤충 백가지, (서울: 현암사) pp. 76-83.

평지(芸蠶)는 芥子科 1년생 초를 말하는 것으로 한의학에서는 ‘개자’의 명칭이 많이 사용된다. 《규합총서》에 ‘평지 마른 것을 넣거나 살라 그 내를 쏘이면 종이 안 먹는다 書齋에도 이 법을 써라’고 경험담을 기록하고 있으며<sup>10)</sup>, 《산림경제》 4권 辟蠹에 ‘평지 置書中無蠹患’이라 하여 서적 보호를 위해 평지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角蒿

각호는 紫葳科의 일년생 초본이다. 《산림경제》 4권 辟蠹에 ‘七月收角蒿 置書齋書籍中 辟蛀蟲’이라 하여 각호가 섬유와 서적 보존을 위해 방충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호는 《본초학》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자위과의 凌雲花를 보면 항균작용이 있으므로<sup>11)</sup> 각호도 항균성을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 2. 섬유류

섬유류 문화재의 가해 곤충은 딱정벌레목, 좀목, 나비목, 귀뚜라미목, 바퀴목(*Blattaria*, *Burmeister*) 5

가지이다. 이외에도 이와 버록은 인체에 해를 끼치고 전염병을 매개하여<sup>13)</sup>, 비위생적인 의복환경을 형성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복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된다. 의복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된 향은 향의 조합 여부에 따라 단일 향과 복합 향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단일 향

문헌에서 섬유류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된 단일 향은 菖蒲, 薺菜花, 蒿菴菜, 莽草, 竹, 百部, 麝香, 평지(養蠶) 등이다. 사향을 제외한 나머지 향은 《향보》 《진서향보》의 향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단일 향으로 사용할 만큼 향기가 강하지 않고 향材로서의 사용이 주된 용도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菖蒲

창포는 중국의 민간에서 목욕에 이용하여 피부에 병원균이 번지는 것을 막아 질병 예방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sup>13)</sup>. 우리나라의 단오 세사풍속에도 창포로 머리감고 목욕하는 풍습이 있었으며<sup>14)</sup>, 《海東竹枝》 「浴菖蒲」에는 「菖蒲水暖似瀉湯 百病消除沐髮香」이라 하여 창포 목욕으로 건강을 지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歲時俗信》에는 「削菖蒲筒頭邊插 從古神方辟癩奇」라 하여 창포를 꺾어 머리에 꽂는 것만으로도 전염병에 효험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5)</sup>. 이는 창포의 항균성을 이용하여<sup>16)</sup>, 가온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음력 오월에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제중신편》 5권 잡방에 「菖蒲殺蚤虱及蟲」이라 기록되어 있고, 《산림경제》 4권 벽층에 「辟蚤虱法 用菖蒲葱浮萍各一斤爲末 每用半盞許撒於席上 次日皆自死」로 기록되어 있다.

웅은 파를 가리키는 것으로 薺白이라고도 하며 살충에 효과적이며<sup>17)</sup>, 부평도 향균성이 있으므로 같이 사용함으로써 살충 효과를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창포는 단일 향 또는 복합 향으로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薺菜花

제채화는 냉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중신편》 5권 잡방에 「薺菜花捋去席下辟蟲蠶」라 되어 있으며 《산림경제》 4권 벽층에 「三月三日收薺菜花鋪席上去蟲蠶」라 기록되어 있어 좀벌레뿐만 아니라 벌레·개미와 같은 곤충을 없애는데 냉이가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냉이는 서양이나 동양에서도 약용 식물로 사용되며 이노, 지혈, 해독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8)</sup>.

#### (3) 蒿菴菜

와거염은 상추 잎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합총서》에 「단옷날 상추 잎을 따 말려 껍과 상자에 넣으면 좀이 없고」라 기록되어 있고 《산림경제》 4권 벽층에도 「端午日取蒿菴菜 置於櫥櫃中則蛙蟲不生」이라 되어 있어 강한 향기를 띠지 않는 상추 잎을 넣기만 해도 살충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살충 효과는 상추의 'lactucarium'이라는 마약성분 때문으로 진통제가 항염증성을 띠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sup>19)</sup>.

#### (4) 莽草

망초는 《周禮》 秋官 龜氏에 「掌除蠱物 以攻祭攻之 以莽草煎之」라 되어 있고 鄭玄注에 「莽草 藥物殺蟲者 以煎之則死」라 하여 기원전부터 쯤을 없애는 용도로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산림경제》 4권

13) 中村公一, 꽃의 중국문화사, (서울: 뿌리와 이파리, 1996), pp. 262-263.

14) 崔大林 譯解, 東國歲時記, (서울: 弘新文化社, 1989), pp. 91-92.

15)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대세시기 I,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3), pp. 110-112, 339.

16) 이기돈, 이순애, 손광진, 이영수, 전계규, 장기완, 「菖蒲抽出物이 數種 菌類原因菌에 미치는 抗細菌效果」, 漢語大詞典編纂處, 漢語大詞典 9 卷인용, 漢語大詞典出版社, p. 412.

17) 陸呂洙, 安德均, 現代本草學, (서울: 高文社, 1973), p. 224.

18) available from WorldWideWeb@http://www.botanical.com/botanical/mgmh/s/shcphc47.html

19) available from WorldWideWeb@http://open-encyclopedia.com/Lactucarium

available from WorldWideWeb@http://open-encyclopedia.com/Analgesic

20) 漢語大詞典編纂處, 漢語大詞典 9 卷인용, 漢語大詞典出版社, p. 412.

벽충에 ‘辟諸物被蛙法用葶草燒烟熏之’라 하여 모든 물건에서 좀벌레를 없애는 방법으로 망초를 태워 연기를 쫓는 법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의복의 방충을 위해서도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5) 百部

백부는 《제중신편》 5권 잡방에 ‘辟蚤虱…百部根煮洗殺亦去犬牛虱’라 하여 의복에 생기기 쉬운 벼룩과 이를 없애기 위해 백부근을 끓여서 씻는 방법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초학》을 살펴보면 백부가 살충 약류로 분류되어 있으므로<sup>21)</sup>, 백부의 항균 효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sup>22)</sup>. 《산림경제》 4권 벽충에는 ‘辟蟻虱法 用百部秦瓦各一兩 合罽爲末 燒烟放衣櫃籠上燻之 虱自盡落 若用二味煮湯洗衣尤妙’라 되어 있어 백부와 진범을 같은 비율로 섞어 태워서 연기를 쫓이거나 달여서 씻어도 좀웁 없앨 수 있는데, 이 두 향에 대해서는 씻는 방법도 효과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辟頭虱法 藜蘆百部同搗爲末 摻髮內搓揉’라 기록하고 있어 백부는 머릿니를 없애는 데도 사용되었는데 머릿니는 옷니와 동일종이므로<sup>23)</sup>, 옷니의 구충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본초학》에서 이들의 약효를 살펴보면 진범, 여로는 살충성을 지니고 있다<sup>24)</sup>.

#### (6) 麝香

사향은 사향노루의 복부에 있는 향주머니의 분비물을 말린 것으로 대표적인 동물성 향료이며 약재이다<sup>25)</sup>. 《향보》 《진씨향보》 《향승》에는 향재의 하나로 설명되어 있으나 방충의 용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그러나 《산림경제》 4권 벽충에 ‘辟蚤虱法…又以麝香少許着在薦上皆可去之’와 ‘辟壁虱法…用麝香殺二箇

爲未置席下即去’라 되어 있어 대표적인 방향성 향료인 동시에 방충의 용도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복합 향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료에서 방충의 용도로 사용된 복합 향을 찾아보면 ‘衣香’이라 이름 붙여진 것이 많다. 의향은 각각의 재료가 그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향재는 모두 약재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 龍腦, 小腦, 사향 등을 첨가하기도 한다. 용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아서 쉽게 구할 수 없고 비싼 약재이므로<sup>26)</sup>, 좋은 향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방향성 향료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부수적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재료가 자세히 기록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중국의 자료만 비교하면 송대 《진씨향보》의 기록과 명대 《향승》의 기록이 향재의 구성은 같으나 白檀香, 丁香, 木香의 비율을 달리하고 있다. 그 외에 각각의 의향은 향재의 구성과 비율이 모두 다르다.

우리나라의 자료만 비교해 보면 《동의보감》, 《제중신편》, 《방약합편》의 의향의 제법이 동일한데 이는 제일 먼저 간행된 동의보감을 참고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제중신편》 ‘寶鑑’의 기록과 ‘內局’의 기록은 향재와 각각의 비율이 다른데, 이는 ‘보감’에는 보편적인 처방을, ‘내국’은 내의원에서 나라에 올리는 처방을 기록했기 때문이다<sup>27)</sup>. 우리나라의 5가지 의향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향재는 백단향, 零陵香, 甘松香, 八角香, 정향으로 《世宗實錄地理志》를 살펴보면 감송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재들이어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8)</sup>.

21) 陸呂洙, 安德均, *Op cit.*, pp. 468-469.

22) 윤소정, 김정환, 이경환, 권효정, 천성숙, 조영제, “추출용매 비에 따른 백부자(*Aconiti koreani* Rhizoma) 추출물의 항균효과 및 항산화 효과,” *한국응용생명화학회지* 48권 3호 (2005), pp. 258-262.

23) 韓國昆蟲學會 編, *一般昆蟲學*, (서울: 正文閣, 2000), p. 437.

24) 陸呂洙, 安德均, *Op cit.*, pp. 253, 280, 468-469, 473-474.

25) 金泰範, 李京淳, 文永熙, 朴鍾喜, 陸呂洙, 安德均, *亞細亞本草學*, (서울: 癸丑文化社, 1973), pp. 525-526.

26) 東國理想國後集 卷九 <謝晉陽公送龍腦及醫官理目病> …醫云非龍腦難理 此藥非人間所常得也 以是難甚 惟懼 不得已仰贖令鑑 伏蒙邸下既賜以千金難覓之藥 又特遣名醫仇郎中來理 此實天地父母之恩也… 釋官雜記 卷二 藥材之不產本國者多矣. 每於使臣之朝京. 遣醫有二員. 資價買來. 牙行之人. 售偽射利. 如蘇合油 藿香 獨活 乳香 射香. 最爲非眞.

27) 濟衆新編 凡例.

28)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표 2〉 의향에 사용된 향료와 비유

문헌 성분	한 국					중 국				
	東醫寶鑑 (1613)	濟衆新編 (1799)		閩閩叢書 (1809)	方藥合編 (1884)	千金要方 (唐,7C)	香譜 (宋)	陳氏香譜 (宋)	壽世保元 (明)	香乘 (明)
		寶鑑	內局							
茅香	1兩	1兩			1兩	3兩				
白芷	5錢	5錢			5錢			0.5兩	3兩	0.5兩
沈東香	2錢	2錢	9兩		2錢					
白檀香	2錢	2錢	9兩	10兩	2錢		10兩	1錢		2錢
零陵香	2錢	2錢	7.6兩	1斤	2錢	4兩	1斤			
甘松香	2錢	2錢	7.6兩	10兩	2錢	3兩	10兩			
八角香	2錢	2錢	7.6兩	10兩	2錢		10兩			
丁香	2錢	2錢	9兩	0.5兩	2錢	1兩	0.5兩	1錢		3錢
三乃子	2錢	2錢	7.6兩		2錢					
辛夷				0.5兩			0.5兩			
凹香				1分			1分		5錢	
小腦			7.6兩							
草薢			7.6兩							
官桂									2兩	
大黃									3兩	
山查									1兩	
細辛									7錢	
薄荷									1兩	
菴香						4兩		0.5兩		0.5兩
沈香										
苜宿香						2兩				
蘭葉						4兩				
木香								1錢		2錢
益智仁								0.5兩		0.5兩
蜘蛛香								0.5兩		0.5兩
원전	東醫寶鑑 雜病篇 券九	濟衆新編 雜方 衣香		閩閩叢書 衣香 <sup>29)</sup>	方藥合編 雜方 衣香	千金要方 <sup>30)</sup> 券六 七箴病上 衣香	券下 香之法 衣香法	卷三 內苑蕊心 衣香	오현주 송태원 <sup>31)</sup>	卷十九 內苑蕊 心衣香

※ 계량 단위 : 1分(1/10돈) 0.375g / 1錢(돈)3.75g / 1兩(10돈) 37.5g / 1斤(16兩) 600g.

29) 閩閩叢書.

30) 唐, 孫思邈, 千金要方.

31) 오현주, 송태원, "문헌에 나타난 향기요법에 관한 고찰," 한방재활의학회지 7권 1호 (1997), p. 548 재 인용.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교해 보면 《향보》와 《규합총서》의 향재와 그 비율이 일치될 뿐 나머지는 각기 다르다. 《향보》와 《규합총서》의 의향이 동일한 것은 중국에서 향보의 자료를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해 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총 9편 문헌에서 보이는 의향에 사용된 향재를 보면 그 구성이 다르고 비율 또한 다양해서 ‘의향’이라 이름 붙여진 복합 향이 한 가지로 확립되지 않고 다양성을 알 수 있다. 총 9편의 문헌 중 6편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향재는 白芷, 백단향, 영릉향, 감송향, 정향 5가지이다. 이들은 모두 향기가 강한 향료이며, 향재의 약리작용은 《본초학》에서 살펴보면 지통, 살충, 향균성 등의 성질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sup>32)</sup>. 다만 영릉향은 燕草, 燕草라고도 하며 약재나 향재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살충성에 관한 설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 좋은 향을 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sup>33)</sup>.

〈표 2〉에 정리된 의향을 만드는 방법을 보면 매우 단순해서 여러 재료를 가루내어 잘 섞은 후 종이 에 싸거나 주머니에 담아서 옷장에 넣어둔다. 《東槎錄》에는 島主가 세 사신에게 용뇌를 섞어 만든 의향을 비단 주머니에 담아 선물한 기록이 보이는데<sup>34)</sup>, 의향이 실생활에서 사용된 하나의 예로써 외교사절을 위한 선물 품목이 될 만큼 의향을 매우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의향은 강한 향이나 살충성을 지닌 7~9 가지 이상의 향재들을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살충 효과와 향기를 배가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피혁류

피혁류 문화재의 가해 곤충은 딱정벌레목, 족목,

나비목, 다듬이벌레목 4가지이다. 문헌에서 피혁류를 잘 보관하기 위한 향은 艾葉, 花椒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艾葉

애엽은 썩을 가리키는데, 썩은 단군신화에 등장할 만큼 그 사용과 유래가 오래된 식물로서 고려시대 단오 세시풍속에 썩으로 만든 艾人을 문 위에 걸고 나쁜 기운을 막았다는 기록이 있는데<sup>35)</sup>, 이 또한 썩의 향균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sup>36)</sup>. 《향보》, 《진씨향보》의 향품에는 그 기록이 보이지 않으나 《산림경제》 4권 벽층에 ‘辟皮物蟲蛀法 以艾捲於皮內放在盆中泥封瓮口’라 되어 있어 가죽에 생기기 쉬운 좀벌레 퇴치에 썩이 효과적이며, 방충효과를 위해 향아리의 입구를 봉합으로써 보관공간의 밀폐도 까지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花椒

화초는 川椒라고도 하며 蓴蓴과로 《산림경제》 4권 벽층에 ‘辟皮物蟲蛀法 花椒在內捲收之’라 하여 화초가 가죽에 생기기 쉬운 좀벌레 퇴치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본초학》을 살펴보면 살충하는 성질이 있으며<sup>37)</sup>, 운향과의 식물이 향균활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뒷받침해준다<sup>38)</sup>.

화초를 넣은 조합 향을 살펴보면 《규합총서》에 ‘皮物과 털옷을 한식 전에 두면 좀이 안 나고... 썩과 화초를 사이에 넣어도 벌레 안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화초는 운향과의 향초로 비교적 향이 강한 식물이며, 썩도 향이 강하고 살충성을 지니고 있어 강한 향기와 성분을 이용하여 좀벌레를 없앤 것을 알 수 있다<sup>39)</sup>.

### 4. 가 타

32) 陸昌洙, 安德均, *Op cit.*, p. 236, 318, 373 백지, 백단, 정향.

保健新聞社, *Op cit.*, pp. 420-421.

33) 香譜 卷上 香之品 零陵香 / 陳氏香譜 卷一 香品 零陵香.

34) 東槎錄 壬戌年七月十一日.

35)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삼국·고려시대-, (2003) p. 204.

36) 박석규, 박종철, “썩 추출물 및 Coumaric A의 향균활성,” *한국생물공학회지* 9권 5호 (1994), pp. 506-511.

37) 保健新聞社, *Op cit.*, pp. 385-386.

38) 김정, 조영수, 서권일, 주옥수, 심기환, “산초와 초피 잎의 향균활성,”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7권 2호 (2000), pp.195-200.

39) 保健新聞社, *Op cit.*, pp. 385-386.

의복과 관련된 지류, 섬유류, 피혁류 이외에도 의복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곤충을 방제하는 데 사용된 향에는 芳香과 竹이 있으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芳 香

방향은 白芷<sup>40)</sup>, 芳草<sup>41)</sup>라고도 하며, 《향보》, 《진씨향보》, 《향승》에 ‘道家以此香浴去尸蟲’의 기록이 있는데 ‘시충’은 부패한 시체에 번식하는 벌레를 가리킨다<sup>42)</sup>. 도가에서는 시충을 없애기 위해 방향으로 씻는 방법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향, 방초보다 백지의 명칭을 많이 사용되었으며, 방충의 용도보다는 약제의 한 가지로 口瘡과 같은 질병치료에 이용하였는데<sup>43)</sup>, 《본초학》을 살펴보면 진통, 항균 작용이 있어 이를 뒷받침해준다<sup>44)</sup>. 시충을 구제하는 것은 의복의 방충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복식 유물에서 출토 복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竹

대나무는 《산림경제》 4권 비충에 ‘辟諸物被蛀法… 燒蕪竹木辟蛀蟲’라 하여 대나무를 태워서 연기를 쏘이면 주충을 없앨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옛부터 땃잎을 음식조리에 이용하거나 동치미에 땃잎을 띄워 산패속도를 완화시켰는데<sup>45)</sup>, 이는 대나무의 항균성과 관련이 있다<sup>46)</sup>.

이외에도 향을 이용한 방충법만큼이나 증시되었던 것은 ‘曝衣’, 즉 햇볕 쬐이기이다. 특히 칠석에 옷을 햇볕 쬐이는 것을 증시하였는데 이는 매우 오래 전부터 행해져 오던 것으로 唐代 沈佺期的 「七夕曝衣篇」 ‘曝衣何許曬半黃…’이라 하여 당대에 햇볕에

옷 말리는 풍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47)</sup>. 우리나라의 기록에는 《東文選》15권 「七夕小酌」에 ‘乞巧曝衣非我事’라 기록되어 있고<sup>48)</sup>, 《규합총서》에 ‘辟皮物虫法條…七夕日晒曝革裘’라 하여 칠석에 의복을 햇볕 쬐이는 풍속이 있었음을 나타낸다<sup>49)</sup>. 이 시기에 의복을 햇볕 쬐이는 것은 높은 습도와 온도로 인해 벌레가 번식하기 쉬운 계절에 습도를 낮추고 강한 자외선을 쬐임으로써 충해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

### III. 방충법

향을 이용하여 방충하는 방법에는 강한 향과 성분을 휘발시키는 發散法, 연기를 쬐이는 薰法, 향 성분을 물에 우려내어 씻는 洗法의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용법은 향제의 조합 여부, 다시 말하면 단일 향과 복합 향의 관계없이 향제의 성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發散法

의복의 방충을 위해 발산법으로 이용된 방충향은 운향, 평지(蒸蘆), 각호, 창포, 제제화, 와거엽, 망초, 사향, 의향, 애엽, 화초 등이다. 이들은 모두 강한 향과 항균 성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취하여 별다른 가공 없이 서적이나 옷 사이에 끼워두거나 보관 상자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다.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거칠게 가루내어 단일 향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종류의 향을 조합하여 향과 방충성을 증진시킬 뿐 별다른 가공을 하지 않았다.

발산법을 이용할 때는 피혁의 방충향으로 사용된 애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방법에 비해서 의복의 양, 보관공간의 크기와 방충향의 비율, 공간 밀

40) 香譜 卷上 香之品 芳香.

41) 陳氏香譜 卷一 香品 芳草.

42) 漢語大詞典編纂處, *Op cit.*, p. 3.

43) 山林經濟 卷三 救急 疔瘡.

44) 陸昌洙, 安德均, *Op cit.*, pp. 236-237.

45)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 문화 3, (서울: 넥서스, 1998), p. 398.

46) 이숙경, “대나무 기름의 항균효과”,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15권 1호 (2000), pp. 55-59.

47) 漢語大詞典編纂處, *Op cit.*, p. 849.

48)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대세시기 I*,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3), p. 254.

49) 閔崗叢書.



폐도에 따른 향의 지속시간까지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 2. 薰法

훈법으로 이용된 방충향은 평지(雲蕙), 망초이다. 훈법은 용도와 상관없이 향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향재를 태우거나 여러 향재를 조합하여 線香, 香篆 등의 형태를 만들어 피우기도 하였다.

훈법은 방향 혹은 방충의 목적을 위해 의복에 향이 스며들도록 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되었다. 《향보》, 《진씨향보》, 《香乘》의 ‘薰爐’<sup>50)</sup> 또는 ‘薰爐’<sup>51)</sup>에서 ‘香爐燒薰以從入寮山給使護衣’로 향로를 이용하여 옷을 보호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 방충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림경제》 4권 벽충에 ‘放衣懸籠上爐之風自盡落’으로 훈풍 위에 옷을 두고 연기를 쏘이면 버룩이 저절로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 훈법을 이용하여 의복의 벌레를 쫓은 것을 알 수 있다.

향재를 태워서 그 연기로 의복을 훈하는 방법은 ‘薰衣置熱湯於籠下衣覆其上使之濡潤取去別以爐蒸香薰異疊衣入籠前隔宿衣之餘香數日不歇’이라 하여 의복을 훈하는 용도의 ‘룽’ 위에 옷을 덮고 그 아래에 끓는 물을 두어 의복에 습기를 가한 후 향 연기를 쏘이는 것이다<sup>52)</sup>. 여기에 사용되는 ‘룽’은 秦漢시대부터 제작되어<sup>53)</sup> 의복에 연기를 쏘이는 것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록에는 《宣和奉使高麗圖經》 博山爐에 ‘以備貯湯薰衣之用蓋欲其濕氣相著煙不散’이라 되어 있다. 박산로의 용도는 훈의용으로 끓는 물로 습기를 가한 후 향 연기를 쏘인다고 되어 있어, 고려 시대에 훈의하였으며 옷에 연기를 쏘이는 방식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같았음을 알 수 있다.

## 3. 洗法

세법으로 이용된 방충향은 창포, 백부, 방향이이다. 이들은 향 성분을 물에 우려내어 씻는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창포와 백부는 달인 물을 이용하여 씻었

는데 방향의 경우는 자세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단순히 물에 담궈 우려내는 것보다 열을 가하는 것이 성분을 추출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므로 방향 또한 끓이는 방법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접적인 발산법이나 훈법에 비해 의복을 직접적으로 씻는 방법은 의복에 있는 각종 벌레와 균을 씻어내고 그 향기와 성분을 의복에 남김으로써 방충효과를 지속시킨 것을 알 수 있다.

## IV. 결 론

이상으로 고문헌을 통해 예로부터 사용한 천연 방충향의 종류와 사용법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의복을 위한 방충향들은 우리 선조들이 실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예로부터 의복은 견, 면, 마, 가죽, 종이와 같은 다양한 재료로 제작되어 왔으며 종이는 의복의 형태 유지를 위한 보조제로 주로 사용되었다. 이들은 모두 유기물질로 환경과 곤충의 의해 손상되기 쉬운 결점을 가지고 있다. 의복을 충해없이 잘 유지·관리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시도되었는데 방충향을 그 용도별로 크게 자류, 섬유류, 피혁류, 기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지류에 사용된 방충향은 운향이 대표적이다. 《향보》, 《진씨향보》에 기록을 통해 송대에 이미 운향이 서적의 좀을 쫓는 방충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조선시대에 운향이 좀벌레로부터 서적을 보호하기 위한 방충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운향을 서적과 관련하여 校書館을 운향각이라 표현하고 있어 서적 보관과 운향은 서로 떼어 수 없는 관계였음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평지(雲蕙), 각호 등이 사용되었다.
2. 섬유류에 사용된 방충향은 향의 조합 여부에 따라 단일 향과 복합 향으로 구분된다. 단일 향

50) 香譜 卷下 香之事 薰爐 / 陳氏香譜 券四 事類 薰爐

51) 香乘 券二十六 香爐類 薰爐

52) 香譜 卷下 香之事 薰香法 / 陳氏香譜 券一 香異 薰香

53) 陳氏香譜 券四 事類 薰籠 / 香乘 券二十六 香爐類 薰籠

- 에는 창포, 제채화, 와거엽, 망초, 사향 등이 사용되었고 복합 향에는 '의향'이라 하여 7~9가지의 향재가 조합되어 사용되었다.
3. 피혁류에 사용된 방충향은 애엽, 화초 등이다. 애엽은 가족에 생기기 쉬운 좀벌레 퇴치에 효과적이며, 방충효과를 위해 향아리의 입구를 봉함으로써 보관공간의 밀폐도를 고려하였다. 화초는 운향과의 향초로 비교적 향이 강한 식물이며, 애엽도 향이 강하고 살충성을 지니고 있어 강한 향기와 성분을 이용하여 방충향으로 사용되었다.
  4. 의복과 관련된 지류, 섬유류, 피혁류 이외에도 의복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곤충을 방제하는 데 사용된 방충향은 방향과 대나무가 있다. 향을 이용한 방충법만큼 중시되었던 것은 햇볕 쬐이기이다. 특히 칠석에 옷을 말리는 것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높은 습도와 온도로 인해 벌레가 번식하기 쉬운 계절에 습도를 낮추고 강한 자외선을 쬐임으로써 충해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
  5. 향을 이용하여 방충하는 데는 강한 향과 성분을 휘발시키는 발산법, 연기를 쏘이는 훈법, 향성분을 물에 우려내어 씻는 세법의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용법은 향재의 조합 여부, 다시 말하면 단일 향과 복합 향에 관계없이 향재의 성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6. 의복의 방충을 위해 발산법으로 이용된 방충향은 운향, 평지(靈麝), 각호, 창포, 제채화, 와거엽, 망초, 사향, 의향, 애엽, 화초 등이다. 이들은 모두 강한 향과 향균성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취하여 별다른 가공 없이 서적이나 옷 사이에 끼워두거나 보관 상자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다.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거칠게 가루내어 단일 향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종류의 향을 조합하여 향기와 방충성을 증진시킬 뿐 별다른 가공을 하지 않았다.
  7. 훈법은 용도와 상관없이 향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훈법으로 이용된 방충향은 평지, 망초이다. 향재를 태워서 그 연기로 의복을 훈하는 방법은 의복을 훈하는 용도의 '룽'을 사용

하였으며, 여기에 사용되는 '룽'은 진한시대부터 제작되어 의복에 연기를 쏘이는 것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선화봉사고려도경》 박산로에 훈의하는 방식이 나와 있어, 고려 시대에 훈의하였으며 옷에 연기를 쏘이는 방식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같았음을 알 수 있다.

8. 세법으로 이용된 방충향은 창포, 백부, 방향이며 향을 물에 넣고 끓여서 성분을 추출하여 이용되었다. 간접적인 발산법이나 훈법에 비해 의복을 직접적으로 씻는 방법은 의복에 있는 각종 벌레와 균을 씻어내고 그 향기와 성분을 의복에 남김으로써 방충효과를 지속시킨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閨閣叢書.  
東國歲時記.  
東國理想國後集 卷九.  
東槎錄.  
東醫寶鑑.  
戊午燕行錄.  
方藥合編.  
山林經濟.  
宣和奉使高麗圖經.  
世宗實錄地理志.  
仿華齋集.  
濟衆新編.  
陳氏香譜.  
千金要方.  
尚莊館全書.  
香譜.  
香乘.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보존과학연구자료  
국립민속박물관 (2005).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삼국·고려시대  
김정, 조영수, 서권일, 주옥수, 심기환 (2000). "산초와 초파 잎의 향균활성."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7권 2호.

- 김진일 (2002).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곤충 백가지* 서울: 현암사.
- 保健新聞社 (1998) *中藥本草學*.
- 박석규, 박종철 (1994). “쑥 추출물 및 Coumaric A의 항균활성.” *한국생물공학회지* 9권 5호.
- 오현주, 송태원 (1997). “문헌에 나타난 향기요법에 관한 고찰.” *한방재활의학회지* 7권 1호.
- 陸昌珠, 安德均 (1973). *現代本草學*. 서울: 高文社.
- 윤소정, 김정환, 이경환, 권효정, 천성숙, 조영재 (2005). “추출용매 비에 따른 백부자(*Aconiti koreanii Rhizoma*) 추출물의 항균효과 및 항산화효과.” *한국응용생명화학회지* 48권 3호.
- 이경희, 이주영, 권영숙 (2005). “우리나라 전통 향의 용도와 성격적 특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권 4호.
- 이주영, 이경희, 권영숙 (2005). “중국 향囊의 유형과 특성.” 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 *제3회 국제학술포럼* 발표집.
- 이기돈, 이순애, 손광진, 이영수, 전재규, 장기완 (2004). “菴蒲抽出물이 數種 蝕蝕原因菌에 미치는 抗細菌效果.”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8권 1호.
- 이상희 (1998). *꽃으로 보는 한국 문화 3*. 서울: 넥서스.
- 이숙경 (2000). “대나무 기름의 항균효과.”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15권 1호.
- 정용재, 이규식, 한성화, 강대일, 이명희 (2001). “천연약재로부터 문화재보존용 방충방균제 개발연구.” *보존과학연구* 22.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 中村公一 (1996). *한서와 일화로 보는 꽃의 중국문화사*. 조성진·조영렬 共譯. 서울: 뿌리와 이파리.
- 韓國昆蟲學會 編 (2000). *一般昆蟲學*. 서울: 正文閣.
- 韓美京 (1998). *藥用植物의 纖維類古文化財의 歷史的考察とその防虫有效性に關する研究*. 昭和女子大學大學院 生活機構研究科 生活機構學專攻 博士學位論文. 한글초록.
- 漢語大詞典編纂處 (1985). *漢語大詞典*. 北京: 漢語大詞典出版社.
- Lynda Zycherman, Richard Schrock (1991). *博物館の防虫對策手引き*. 杉山眞紀子・佐藤仁彦 共譯. 東京: 淡文社.
- <http://open-encyclopedia.com/Lactucarium>
- <http://open-encyclopedia.com/Analgesic>
- <http://www.botanical.com/botanical/mgmh/s/shephe47.html>
- <http://www.minchu.co.kr>